

데스크시각

박치경



전남대를 졸업해도 서울 가서 뒤편하게 취업원서 쓸 수 있었다.

올해 개교 60주년을 맞는 전남대의 현 주소는 어디인가? '실력 광주' 소리를 들 어온 지역의 수능 상위권 학생들은 전남 대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졸업하고 나면 별 볼일 없다"며 대부분 서울랭 KTX에 몸을 싣는다. 광주의 우수 고교 생들이 고스란히 수도권 대학에 빨려가 는 것은 단적으로 전남대가 미답지 않다 는 것이다. 이렇듯 오그라드는 관에 총장 잘 뽑는

대학은 그만큼 뒷걸음질할 게 뻔하다.

그렇다면, 어떤 총장을 뽑아야 하나. 우선 새 총장은 좀 더 '사나워질' 필요가 있다. 역대 총장 모두 학교발전 위해 정부나 지역사회, 동문을 대상으로 활발 하게 뛰어왔다. 그러나 앞으로 호남권 거 점대학이라는 이름값만으로 대접받기는 어렵다.

조금 더 사나워져라

또 올해는 정치권의 큰 변동도 예상된다. 따라서 차기 총장은 새로운 상황에 맞 춰 대학을 먹여살릴 재원과 인재를 확보 하기 위해 신발끈을 잘라매야 한다. 중앙 정부의 인맥을 풀가동하고, 정치력도 발 휘해야 한다. 지방대라고 말한다면 장 관실에 쫓아가 고성을 지를 수 있는 강단 도 지나야 한다.

국제화 시대에 걸맞도록 대학 위상을 획기적으로 높일 감각을 지녀야함은 물론 이다. 참신한 제도로 경향 각지에서 우수 학생을 끌어들이 아이디어도 필요하다. 그리고 수백 개에 이르는 결핵원은 대학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만 빼고 모두 실무자에게 쥐라. 위기에 빠진 전남 대를 살리기 위해 총장이 '의자왕' 소리를 들어서 는 안되지 않겠는가?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의자왕'(椅子王)을 아는가? 여러분이 속직하고 있는 백제의 마지막 의자왕(義 慈王·재위 641~660)을 지지하는 게 아니 다. 필자가 말하는 의자왕은 기관이나 조 직에서 의자만 지킨 채 제 역할을 못하는 장 (長)을 비꼬는 표현이다.

의자왕의 특성은 이렇다. 우선 내부 결 재에 철저하다. 인사는 물론이요, 이권이 걸린 결정은 철두철미하게 챙긴다. 반면, 조직의 난관을 돌파하는 데는 몸을 사린 다. 걸려온 문제가 터지면 내서는 시늉 만 한다. 당연히 잘 풀리지 않을 수밖에... 외부에서 열리는 회의에는 열심히 참석한 다. 그러나 현안에 대해 주도적으로 나서 는 일은 드물다. 열심히 의자만 지키다 자 리를 뜬다.

전남대 총장 선거도 주목

갈수록 4·11총선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 가운데 조용히 다가오는 중요한 선거가 또 하나 있다. 바로 제19대 전남대

총장 선거다. 우선 오는 22일 본선 참가 후보자 선정을 위한 컷오프가 실시된다. 여기에만 10명이 등록한 상태다. 컷오프 를 통과한 3명이 오는 5월 23일 본선을 치 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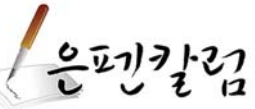
전남대 총장 선거를 앞두고 (뜬금없을 수도 있는) '의자왕'이야기를 꺼낸 것은 대학의 총체적 위기 때문이다. 물론, 대학 운영의 가장 기본은 아카데미즘이다. 학 문연구와 후진양성이야말로 대학 본연의 임무다. 그러나 바깥에서 쳐다 본 전남대 의 형편은 그리 한가해 보이지 않는다.

전남대가 어떤 대학인가. 어렵게 말할 것도 없다. 십수 년 전만 해도 지방국립대 가운데 두 세 번째로는 폼났다. 수도권 시 시한 사립대보다 훨씬 나왔다. 몇몇 단과 대는 지금도 그렇다는 평을 받고 있지만,

일이 전남대로서는 중차대하다. 총장 혼 자 다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대학을 살 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능력있는 총장이 절실하다.

대학에서 총장 후보에 오르내릴 정도면 훌륭한 인사들이다. 그렇지만, 현재 전남 대의 실정으로 보면 말머리에서 꺼낸 '의 자왕'으로는 곤란하다. 총장실 깊숙한 의 자에 앉아 날마다 사인하고 임명장 주고, 외국대학 순방하는 일이 주업이 돼선 정 말 안 된다. 총장 위상에 걸맞게 풀위는 지 켜야겠지만 헛무게만 잡다가 4년 보내면

'의자왕'은 안 된다



강대석

요즘 SNS(Social Network Service), 그중 에서도 페이스북을 하지 않은 정치인은 별 로 없는 것 같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국 회의원 후보자들이 앞을 다투어 페이스북을 개설하고,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어 떤 후보는 자기의 정책을 꾸준히 소개하고, 어떤 후보는 지역의 식당이나 그날의 활동 내용을 소개하며 지역민과의 교감을 넓혀가 고 있다. 그런가 하면 기업체나 단체에서도 페이스 북을 활용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

페이스북의 명암

다. 소셜 미디어 시대를 실감케 한다. 글쓰기와 사진 업로드가 간편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이 가능한 페이스북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편리한 홍보수단이라고 생각된다. 필자 역시 지난해 공무원교육원에서 어깨 너머로 배운 SNS 교육 덕분에 페이스 북을 시작한 이후, 지금도 친구들과의 소통과 정 보교환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처럼 페이스북을 확인하고, 그 외 시간에도 종종 스마트폰을 열 어 페이스북을 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러한 이용 패턴은 필자 뿐만이 아니라 페이스 북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거의 비슷한 것 같다. 왜냐하면, 그들의 글 쓴 시간대를 보면 사용빈도를 짐작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1월 말 현재 페이스 북 가입자는 세계적으로 약 8억 5000명이

며, 그중 한국인 이용자는 570만 명 정도라 고 한다. 또 이용자 한 사람이 하루 평균 54 분을 여기에 소비하며, 미국의 30대 여성들 은 3명 중 1명이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 지 페이스북을 확인한다고 한다. 2004년 하버드대학의 기숙사에서 당시 19세의 대학생이던 마크 주커버그가 창안 한 페이스북은 교내 사이트로 시작되어 이 제 세계적으로 가장 파워 있는 소통의 창구 가 되었다. 기업가치가 무려 1천억 달러 (120조원)라고 하니 정말 페이스북의 확장 세는 가히 폭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페이스북의 성공신화와 긍 정적인 면 뒤에는 반대로 부정적인 면도 없

은핀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핀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 는 코너입니다.

기고

'5분의 기적' 나에게 달려 있다



이철호

최근 대한민국 소방은 '2012년 국민생명 보호정책'을 추진 방향으로 선정, 화재사고 로 인한 사망률 저감을 위해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세부계획 중 하나가 '화재 현장 5분 이내 도착률 향상'이다. 5분 이내 출동은 왜 중요할까? 화재는 조 기에 소화하지 않으면 연기와 열의 축적으로 급속하게 진행되어 피해가 커지는 만큼 초기의 신속한 대응이 화재의 규모를 결정 하게 된다. 피해액이 급속도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자칫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화

재 발생 최소 5분의 시간이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 이다. 흔히 소방차가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지 못하는 원인은 교통혼잡과 불법정주차 때문 이다. 사이렌을 울리며 바쁜 길을 재촉하는 소방차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는 차, 사거리 에서 소방차보다 먼저 신호를 받았다고 빠 르게 지나가며 위협하는 차, 주택가·골목길 등 좁은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항시 정전을 치르게 된다. '내가 아니어도 양보하지 않는 차들이 많 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양보하 자'라고 사고를 전환해보면 어떨까? 내 집 이 불타고 있고, 내 가족이 울고 있다고 생 각해 보자. 사고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나 일어날 수 있다.

물론, '1인 1차량 시대'가 되면서 늘어나 는 차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이 불법 주차차의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의 고질적 문제라 할 수 있는 '내 문제만 아니면 된다'는 잘못된 시민안전의 식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의식을 바로잡기 위하여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차 차량의 이동 및 제거에 따르지 않을 시 300만 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도로교통법에서도 출동 중인 소방차의 진로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긴급 자동차에 대한 진로 양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이나 비디오테이프 등에 입증되는 경우 차 량 소유주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규정에 앞서 소방통로 확보, 소방차량 길 터주기는 운전자로서 준 수해야 할 기본 의무임을 명심해야 한다. 법 에 의해 단속되는 순간에도 화제는 커져 가 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소방차량 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긴급차량 통행시 좌·우측으로 피 양과 차선 양보, 협소한 도로에 양면 주·정 차 및 소방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과 관 등의 설치행위를 금해야 한다. 또 아파 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주차선 설치와 주차금지,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 차 금지 등으로 소방통로 확보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황 금의 5분, 그것은 우리가 모두가 지켜내야 하는 의무다. 내가 먼저 지키는 주차질서, 내가 먼저 양보해서 확보되는 소방차 출동 로, 바로 이것이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5분의 기적'임을 우리 스스로 새겨야 할 것이다. <광주동부소방서 현장대응과장>

부동산 브로커들 허위·거짓 정보 제공 피해 우려

가계를 전세내어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데 최근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 어느 날 부동산 중개업자라는 사람이 찾아와 "목 좋은 곳에 자리가 났다"며 새 집으로 갈 방안을 주겠다고 말했다. 나는 당장 우리 샵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할 생각이 없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알아는 봤더니 부 동산 업자가 소개한 곳은 시세보다 터무니없 이 높은 가격인데다 매물로 나와 있지도 않은 집이었다. 그런데 그 얼마후 엔 여자가 전화를 걸어와 날더러 헤어살 매장을 팔려고 내놓았는 다고 물었다. 무슨 똥판지같은 소리라며 되 물었다니 부동산 업자한테 들은 얘기고 같았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우리 매장의 위 치와 전세가격, 프리미엄까지 대면서 얼마

에 팔 거냐고 하는 게 아닌가. 나는 미용실을 팔 생각도 없고, 다른 곳에 가서 추가로 개업할 계획도 전혀 없는데, 어떻게 개인정보를 알았는지 이런 전화가 그 후로도 무차별적으로 몇 번이나 더 왔다. "가게 내놔야냐, 새 직영점을 내보지 않겠 느냐"고 묻는 부동산 중개업자도 있었다. 심지어 본사가 잘 운영하고 있는 직영 샵이 매물로 나왔으니 사라는 황당한 정보를 전 해오기도 했다. 그 일로 한동안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모른다. 그런데 우연인지 몰라도 얼마후 다른 곳 에서 뷰티샵을 하는 친구로부터 이런 비슷 한 전화를 많이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알고 보니 뷰티샵을 팔고 사는 부동산 브로커들 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이었다.

즉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장사 좀 되는 미 용실이나 뷰티샵을 팔라 줘야 매매나 이전, 오픈 등을 권유하는 수법이라고 한다. 브로 커들은 뭇 좋은 상가자리에서 영업을하 는 샵을 팔라 매장을 팔게 하거나 또는 장사가 잘 되니 하나 더 하라는 식으로 권하는 것이다. 몇 군데 다니며 이렇게 현혹 하다가 한두 군데가 팔거나 사겠다고 하면 서로 연결해 한쪽에는 팔게 만들고 한쪽에는 사게 하여 양쪽의 거래를 성사시키고 돈을 버는 행위

다. 이렇게 매각 대상자와 매매 희망자 양측 을 오가며 가격을 조율해 거래 성사 시 차액 이나 일정한 사례비까지 챙기니 정말 보물 의 브로커들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 솥 자나 매매가격에 대한 허위, 과장, 거짓 정 보를 제공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 거래 당사 자에게는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미용실이던 뷰티샵이던 일반 업소든지 간 에 브로커들의 이런 행태에 속지 않으면 좋겠다. ▲김옥임·순천시 인제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 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시설

정부, 농정 일관성으로 농민 신뢰 회복해야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갑작스레 사업을 축소하는가 하면 '농업 종장기 계획'조차 중도 변경 하거나 예측치 못한 현상 혼선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농림부는 최근 눈에 다른 작물을 재 배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논 소득 기반 다양화사업' 대상 작물을 가공용 벼와 콩, 조야료로 제한했다. 대상 면적 도 올해는 쌀 생산량을 늘릴 필요가 있 다는 점을 들어 지난해 4만ha에서 5000 ha로 대폭 축소했다. 지난 2010년 쌀 공 급급임에 따른 수급안정을 내세우며 논 에 벼 대신 약용작물, 고추, 감자 등의 재배를 권장하고 1ha당 300만 원씩 보 조금을 지급하던 것을 불과 1년 만에 바 꾸는 것이다. 농민들이 정책에 이렇게 일관성이 없 어서야 누구 말을 따르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은 여기서 끝 이 아니다.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

립한 '농업 종합대책'도 오는 2013년까 지 6ha 이상 쌀 전업농 7만 호를 육성 해 전체 쌀 생산량의 50% 이상을 담당 하도록 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목표 달 성은 극히 희박하다. 지난 2009년 2만 119호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2013년 가봐야 2만5770호에 불과할 것이라는 국회 예산처의 전망은 이의 방증인 셈 이다. 쌀 소비 촉진 정책도 불신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20억 원의 예산으 로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는 등 쌀 소비 촉진에 나섰으나 1인당 쌀 소비량은 연 간 71.2kg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2.2% 줄며,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 다고 한다. 이러니 정부 정책을 믿고 따 를 농민이 어디 있겠는가. 지금 농촌, 농민은 한미FTA 등 개방 과고로 엄청난 시름에 잠겨 있다. 당국 은 농업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을 입안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 끝없이 추 락한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지역 건설경기 '불황 터널' 타개책 없는가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건설업체의 기성실적이 전년도보다 소폭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년도 기성실 적이 2009년보다 30%가량 줄어든 것 을 감안하면 지역 건설경기는 최악의 상황이다. 광주·전남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에 따르면 2011년도 광주지역 종합건설 업체의 기성총액은 1조1268억 원으로 전년(1조1496억 원)보다 2.0%(228억 원)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09년(1조 2589억 원)과 비교하면 10.5%(1321억 원)나 줄어든 수치다. 전남 종합건설업 체의 기성실적도 200억(0.3%) 감소 했으나 2009년과 비교할 경우 30% 가 까이 줄었다. 광주지역 전문건설공사의 기성총액 도 1조2664억 원으로 전년(1조3672억 원)보다 7.4%(1008억 원) 감소했다. 전 남은 기성실적이 8.2%(2382억 원) 늘 었다고는 하나 2009년 보다 14.6% (4920억 원)가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건설경기가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역 건설업체의 불황은 사실 어제으 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4~5년 전부터 주택시장이 침체되다 건설 물량이 대 거 줄고, 증권건설업체가 잇따라 도산 하면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기대를 걸었던 공공부문 투자 확대도 소위만 요란했지 실체가 없다. 4 대강 사업, 기업도시 조성, 광주 야구장 과 하계(대회) 선수촌 등 대형 공공공사 를 대형 건설사가 독식한 게 대표적인 예다. 정부는 한계 상황에 있는 지역 건설 업체 현황을 감안해 신규 공공공사를 대폭 늘리는 한편 지방건설경기 부양책 등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광 주시와 전남도 역시 대형 건설사와 지 역업체의 협력체계 강화, 대규모 공사 의 분리 발주 등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 해야 한다. 지역경제의 한 축인 건설시 장이 붕괴되는 일만은 막아야 하지 않 겠는가.

無 等 鼓

1973년 8월 23일, 스웨덴 스톡홀름에 서 500여 명을 붙잡아 놓고 벌인 인질극 있는 크레디트반켄(Kreditbanken)은 행에 4명의 무장강도가 침입했다. 이들 은 은행 직원들을 볼모로 잡고 무려 6일 간 경찰과 대치하며 인질극을 벌였다. 인질들은 처음엔 강도들을 무시워 했 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강도들에게 호감 을 갖게 됐으며, 인질극이 끝날 무렵엔 자신들을 구하려는 경찰들을 오히려 적 대시하기까지 했다. 인 질들은 경찰이 증언을 요구했을 때 인질들 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 지 않았으며, 심지어 한 여성 인질은 강도를 중 한 명에게 애정을 느낀 나머지 약혼자와 파혼 까지 하게 된다. 이른바 '스톡홀름 증 후군'이다. 인질로 잡힌 사람들이 인질범들에게 정신적으로 동 화되어 자신들을 볼모로 잡은 범인들에 게 오히려 호감과 지지를 보여주는 심 리현상이다. 메르트 좌익반군 투락아마르혁명운동 (MRTA) 게릴라들이 지난 1996년 12월 17일부터 이듬해 4월 23일까지 126일 동안 페루 수도 리마의 일본 대사관에

서 500여 명을 붙잡아 놓고 벌인 인질극 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타난다. 게릴 라들은 인질 가운데 225명을 사건 발생 5일 후 풀어주는데, 이때 풀려난 인질들 중 상당수가 게릴라들에게 동정적이었 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행운까지 발 어주는 일이 벌어졌다. 노무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를 놓고 말들이 많다. 하지만, 법(法)은 만 인에게 공평해야 한다. 그것이 원칙이다. 그 누 가 대통령의 가족이어서, 그리고 그 대통령이 비리혐의로 수사를 받 던 중 "억울하게" 죽었 다는 이유에서 그 가책 이 저질렀을지도 모를 범죄에 눈을 감아준다면, 그것은 권력에 대한 굴종이다. 절대권력에 사람들이 인질범들에게 정신적으로 동 화되어 자신들을 볼모로 잡은 범인들에 게 오히려 호감과 지지를 보여주는 심 리현상이다. 메르트 좌익반군 투락아마르혁명운동 (MRTA) 게릴라들이 지난 1996년 12월 17일부터 이듬해 4월 23일까지 126일 동안 페루 수도 리마의 일본 대사관에



Table with publication info: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업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국독신청·매일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채주부 2200-621,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3,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7,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신 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지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 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